



# kt행 김현수 '또 다른 도전'

LG 우승 일등공신이지만 이별  
계약금 30억·연봉 20억 3년 계약  
"가치 인정해준 kt에서 새 출발"  
강백호 공백 메울 구심점 될 듯

“타격 기계” 김현수(37)가 서울 잠실구장을 떠나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 등지를 틀었다. 프로야구 kt wiz는 25일 “자유계약선수(FA) 외야수 김현수와 3년 50억 원(계약금 30억 원·연봉 총액 20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두산 베어스에 육성 선수로 입단한 김현수는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두 시즌을 보내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LG 트윈스에서 뛰었다.

2022시즌을 앞두고 LG와 4+2년 최대 115억 원에 계약한 김현수는 “계약 연장 조건”을 채우지 못해 다시 FA가 됐다.

당시 2년을 더하는 조건은 25억 원이었지만, 김현수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더 좋은 조건인 3년 전액 보장 50억 원에 세 번째 KBO리그 FA 계약을 했다.

김현수는 2018시즌을 앞두고 4년 115억 원에 첫 번째 KBO리그 FA 계약을 했다. 2022년에 한 4+2년 계약의 실제 수령액은 90억 원이었다.

김현수는 세 번의 FA 계약으로 국내에서만 25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KBO리그에서 FA와 비FA 다년 계약으로 250억 원 이상을 보장받은 선수는 302명의 최정(SSG 랜더스, 277억 원의 양의지(두산), 257억 원의 김광현(SSG)에 이



어 김현수가 네 번째다.

김현수의 KBO리그 통산 성적은 2221경기, 타율 0.312, 261홈런, 1522타점, 1256득점이다.

두산 소속이던 2008년과 LG 유니폼을 입고 뛴 2018년에는 타율 1위에 올랐다.

올해 한국시리즈(KS)에서는 17타수 9안타(타율 0.529), 1홈런, 5볼넷, 8타점을 올려 처음으로 KS MVP를 차지했다.

kt는 “8000 타석 이상 기준으로 김현수는 KBO리그 타율 역대 4위이며, 통산 2532안타로 최다 안타 3위에 올라있다. 통산 경기 출장 6위, 타석 3위(9384타석) 등 각종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고 소개했다.

내부 FA 박해민과 4년 최대 65억 원에 계약한 LG는 김현수와도 협상했다. 하지만 kt가 내민 조건이 더 좋았다.

박찬호(두산과 4년 최대 80억 원에 계약), 박해민 영입전에 뛰어들었지만 빈손으로 물러났던 kt는 “50억 원을 보장하며 김현수의 마음을 얻었다.

김현수는 “가치를 인정해준 kt에 감사하다. 협상이 길어져서 LG와 kt에 죄송하다”며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선수 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LG팬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도현 kt 단장은 “김현수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타선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 잠실구장이 아닌 수원구장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그라운드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베테랑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김현수를 반겼다.

## “내년에 만나요”

WBC 출전 알린 오타니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을 우승으로 이끌고 최우수선수(MVP)와 올-클래스 팀 지명타자-투수 부문 수상자로 뽑힌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2026 WBC에도 출전한다.

오타니는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2026 WBC 출전을 약속했다.

그는 영어로 “또 한 번 멋진 시즌을 보내게 해준 모든 팬께 감사하다”며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에 뛴다”고 썼다. 이어 일본어로 “다시 일본을 대표해 뛰게 되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오타니의 WBC 출전 의사에 일본 야구는 환호했다. 오타니는 만장일치로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에 뽑힌 뒤 “WBC에 관해서는 다저스 구단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저스의 수장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14일 일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아베마(ABEMA)와의 인터뷰에서 “WBC가 정말 중요한 대회라는 걸 안다. 우리 팀 일본 선수들이 WBC에 출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WBC에 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시리즈(KS) 우승 트로피를 든 LG 트윈스 김현수가 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통합우승 IN 잠실’ 행사에서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당구 팀리그 4R에서 우승한 크라운해태, PBA

## 전패 딛고 라운드 우승... 당구 크라운해태 '꼴찌의 반란'

PBA 팀리그 4R 1위... PS 진출  
프로당구(PBA) 팀리그 크라운해태가 직전 라운드 전패의 수모를 딛고 창단 후 두 번째로 라운드 우승을 차지했다. 크라운해태는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켈컴저축

은행 PBA 팀리그 2025-2026 4라운드 마지막 날 경기에서 휴온스에 세트 점수 3-4로 졌다. 그러나 같은 시간 열린 경기에서 우승 경쟁 팀인 SK렌터카 역시 하이원리조트에 3-4로 탈미를 잡았다. 이로써 승점 19를 기록한 크라운해태는

승점 18의 SK렌터카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4라운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크라운해태의 라운드 우승은 2023-2024 시즌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시즌 하나카드(1라운드), 웰컴저축은행(2라운드), SK렌터카(3라운드)에 이어 네 번째로 포스트시즌(PS)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특히 3라운드에서 9전 전패를 당해 최하위에 머물렀던 크라운해태는 곧바로 이어진 4라운드에서 정상에 오르며 ‘꼴찌의 반란’을 완성했다. 직전 라운드 최하위 팀이 다음 라운드 우승을 차지한 것은 PBA 팀리그 출범 이후 최초다.



옷이 오르지 않아 드셔본 분은 꼭 다시찾게되는



# 콜라겐이 풍부한 옷이랑 닭발 진액골드

닭발의 콜라겐과 토종 참옷의 폴리보노이드로 제대로된 몸보신하세요!



옷이랑 대표이사 김중규

토종 참옷 전문브랜드 옷이랑 제품중 옷이랑 닭발진액골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닭발과 토종 참옷이 만나서 새로운 보양식으로 탄생했습니다. 닭발에는 콜라겐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및 몸에 이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기가 높은 식품입니다. 몸에 좋은 닭발을 많이 섭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구하기는 쉽지만 조리하기도 까다롭지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닭발을 진액으로 제조하여 쉽게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제거, 닭발속의 영양분에 토종 참옷을 더하여 여름철 지

천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몸보신 제품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콜라겐 때문에 닭발을 많이 드시는데도 맵고 짜서 많이 드시진 못합니다. 아릴 때 옷이랑 닭발진액 골드를 드시면 됩니다. 옷이 오르지 않는 참옷진액과 닭발 속의 콜라겐을 섭취하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옷이랑 닭발진액골드는 무독화 특허기술로 닭발과 토종참옷, 오갈피나무, 건조쇠부름, 구기자, 나무열매, 생강, 삼주 뿌리, 들기, 감초 등을 넣어 부담감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닭발의 콜라겐과 토종 참옷의 폴리보노이드를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루시올이 없어 옷이 티지 않는 토종참옷 우루시올은 옷을 오르게 하는 성분입니다. 옷이랑 참옷에는 우루시올이 단 한방울도 없어 옷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몸질을 위한 위생적인 최첨단 설비  
옷이랑 제품들은 재천 한방연구소 공원에 위치한 재천 바이오밸리의 생산공정에서 제조합니다. 재료의 입고부터 선별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설비에서 생산됩니다. 완벽한 청정시설로 일체의 유해미생물의 존재 막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50% 특별할인**

토종 참옷과 닭발의 2배 농축진액

- 1박스(80mlx30포) 456,000원 - 78,000원
- 2박스(160포) 912,000원 - 138,000원
- 3박스(240포) 1,368,000원 - 198,000원

발매기간 : 2025년 9월 30일 까지

주문전화 / 02-458-0821  
농원 301-0253-2226-11 예금주 (주)옷이랑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능